

## 鬮花瘡의 原因, 症狀 및 治方에 對한 文獻的 考察

朴惠峻\* · 高祐新\*

### ABSTRACT

#### A Literatural Studies on the Cause, Symptom and Treatment of the Bun-Hwa-Chang(鬮花瘡).

Park Hae-jun · Go Yoo-sin

Bun-Hwa-Chang is a kind of sore and occurs skin. It is reported that Bun-Hwa-Chang is similar to skin carcinoma. The So-Moon(素問) explains that "sores, pains and ichings are occurred to the heart fire(諸瘡痛痒 皆屬心火)" is the factor of it.

It will be helpful for examination closely to the cause of the suppurative infection to amount for Bun-Hwy-Chang and to approach modern medical skin carcinoma.

It also gained some views about the examination and access of skin carcinoma which is one of skin diseases that occurs because of modern environmental pollution through chinese medical literature contemplation, as a resort, it is reported as stated above.

---

\* 東義大學校 外官科學 教室

## I. 緒 論

瘡은 瘡瘍이라고도 하며 皮膚나 살에 생긴 外傷이나 皮膚病을 통틀어 일컫는다<sup>2)</sup>.

《素問·至眞要大論》<sup>3)</sup>에는 “諸瘡痛痒 皆屬心火” 라고 하여 瘡의 原因에 대해서 最初로 言及했다.

巢<sup>4)</sup>는 脾主肌肉, 肺主氣하는 人體의 正常 生理機能이 失調되고 體虛하면 肌肉이 熱을 발생하게 되고 皮膚와 腠理가 開하여 風濕이 침입하게 되는데 이 濕과 熱이 相搏하면 頭面身體의 全身에서 瘡이 發生한다고 보았고, 처음에는 胞와 같으나, 점차 甚해지면 疥이 생기고, 熱이 盛하면 膿이 생기고 痒, 痛, 腫, 焮, 身體壯熱 등의 症狀이 發生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諸瘡중 하나가 本 論文에서 考察하고자 하는 翻花瘡으로, 瘡의 形狀이 꽃잎이 뒤집혀 나오는 모양과 같다 하여 翻花瘡 혹은 反花瘡으로 불린다<sup>5)</sup>. 症狀은 一肉이 菌과 같이 翻出하는데, 大小長短이 같지 않고, 或 蛇形과 같은 것은 數寸에 이르며, 無痛痒하고 鮮血이 流한다고<sup>6)</sup> 하였다.

이러한 翻花瘡을 顧<sup>7)</sup>는 西洋醫學의 皮膚癌중 편평상피 세포암과 서로 類似하다고 하였다.

西洋醫學의 皮膚癌은 기저세포암(Basal cell carcinoma)과 편평상피 세포암(Squamous cell carcinoma)으로 크게 나누어 지는데 日光이나, 放射線, 熱傷, 火傷, 慢性潰瘍後 惡化, 化學物質,

慢性的인 機械刺戟, 職業的인 原因 등으로 發生하며 처음에는 단발 또는 수개의 둥근 丘疹을 形成하고 점차 커지면서 中心部는 陷沒, 潰瘍과 痂皮를 形成하고 시일이 지날수록 潰瘍의 中心部는 분화구와 같이 隆起되고 潰瘍 中心部는 꽃 양배추 모양으로 잠식, 膿汁 또는 粘液으로 덮혀 있으면서 潰瘍의 주변부 皮膚가 뒤집혀져 안으로 말려든 것과 같은 특이한 모양을 하고 있다<sup>8)</sup>.

本 論文에서는 韓醫學的 觀點에서 翻花瘡의 原因, 症狀, 治療를 考察하여 環境公害, 대기오염, 過度한 스트레스 등 여러 가지 原因으로 增加되는 疾患 中 하나인 皮膚癌에 대한 接近을 試圖하고자 한다.

## II. 研究資料 및 研究方法

### 1) 研究資料

『中醫外科臨床手冊』의 20種의 參考

3)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303~304.

4) 巢元方, 『諸病源候論』, 台中: 昭人出版社, 1988, pp. 593~594.

5) 巢元方, 『諸病源候論』, 台中: 昭人出版社, 1988, pp. 593~594.

6) 李 梴, 『醫學入門』, 서울: 大星文化社, 1990, p.289.

吳 謙 外, 『醫宗金鑑』, 서울: 大星文化社, pp. 414~415.

7) 顧佰康 外, 『實用中醫外科學』,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5, pp.552~553.

8) 대한피부과학회, 『피부과학』, 서울: 高文社, 1995, pp. 272~280.

2) 김동일 外, 『동의학사전』, 서울: 여강출판사, 1989, p.807.

文獻을 參照하였다.

## 2) 研究方法

① 歷代 醫書에서 黧花瘡의 原因, 症狀, 治法·治方과 關聯된 原文을 찾아 本 論文의 本論에 모았다.

② 黧花瘡의 原因, 症狀, 治法·治方과 關聯된 原文을 解釋하였고 原文 解讀에 充實하고자 直譯하였다.

③ 原文을 直譯하여 이를 다시 原因, 症狀, 治法·治方別로 區分하여 分類해 놓았고, 原文은 脚註로 만들어 本論 各 page 하단부에 실어, 本論 page 상단에 있는 解釋部分과 比較할 수 있도록 해놓았다.

④ 韓醫學에서 말하는 黧花瘡이 現代醫學의 皮膚癌과 類似한지에 대해서 比較 檢討하였다.

⑤ 韓醫學에서 黧花瘡의 原因, 症狀, 治法, 治方과 洋方에서 皮膚癌의 原因, 症狀, 治法·治方을 相互 比較 檢討하였다.

## III. 本 論

### 가. 原因

#### 1. 《靈樞·刺節眞邪篇第七十五》

：虛邪가 人體에 侵入하면 寒邪와 熱氣가 서로 相薄하니 오랫동안 머물러 제거되지 않고 丙에 쌓인다<sup>9)</sup>.

9)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 東洋醫學研究院, 1985, p.314.

“虛邪之入於身也, 深寒與熱相搏, 久留

#### 2. 《巢氏諸病源候論·反花瘡候》

：反花瘡은 風毒이 相搏해서 생긴다<sup>10)</sup>.

#### 3. 《醫學入門》

：黧花瘡은 瘡이 收斂되면서 元氣가 虛弱해지고 肝火로 인해 血燥生風하거나, 怒火로 인해 瘡이 생긴 것이다<sup>11)</sup>.

#### 4. 《薛己醫按》

：黧花瘡은 瘡瘍이 潰한 後에 肝火로 血燥해서 生風한 까닭이다<sup>12)</sup>.

#### 5. 《外科秘錄》

：이 瘡은 淫毒之氣에 感해서 發病한 것이다<sup>13)</sup>.

#### 6. 《醫宗金鑑》

：黧花瘡의 病因은 潰한 後에 發生하는데, 血이 燥하고 肝虛한데 怒氣하여 發生한다. 總괄적인 原因은 肝虛한데 怒氣가 逆上하고 血燥해서 發生한

而內著”

10) 巢元方, 『諸病源候論』, 台中 : 昭人出版社, 1988, p.593.

“反花瘡者, 由風毒相搏所爲”

11) 李 梴, 『醫學入門』, 서울 : 大星文化社, 1990, p.289.

“因瘡將斂, 元氣虛弱, 肝火血燥生風, …由怒火者”

12) 陳夢雷 外, 『醫部全錄 : 薛己醫按』, 서울 : 大星文化社, 1992, p.372.

“黧花瘡者, 由瘡瘍潰後, 肝火血燥生風所致”

13) 陳士鏞, 『外科秘錄』, 서울 : 醫聖堂, 1993, p.132.

“此瘡亦感淫毒之氣也”

다<sup>14)</sup>.

### 7. <外科證治全生>

: 原因은 다 毒에 感한 것이다<sup>15)</sup>.

### 8. <外科大成>

: 原因은 潰瘍이 生한 後 血燥生風한 까닭이다<sup>16)</sup>.

### 9. <中醫外科學>

: 이는 肝虛한데다가 怒氣하여 血이 燥하므로 發生한다. 皮膚癌은 外로 露出된 皮膚에서 많이 보이는데, 長期間의 強烈한 日光照晒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 외 機械損傷, 灼傷, 慢性潰瘍, 柏油, 煤煙, 石油 等の 化學物質은 能히 皮膚癌을 誘發시킬 수 있다<sup>17)</sup>.

### 10. <中醫外科臨床手冊>

: 기저세포암의 原因은 長期間의 日光照에 露出되어 火毒이 外侵하고 內로는 痰濁凝結하여 皮膚에 氣滯血瘀阻滯하므로 發生한다. 편평상피 세포암의 原因은 처음에는 濕痰과 氣血이 凝結하여 發生하고 病이 久하여 鬱하면 火로 변하고, 이것이 氣血을 耗傷하게 되므로 陰虛內熱을 유발하여 皮膚가 榮華로움을 잃어버린 까닭이다<sup>18)</sup>.

### 11. <中醫臨床大全>

: 臟腑虛弱으로 인해 發生한다. 특히 脾胃의 기능이 날마다 衰滅해서이

다. 脾虛로 인해 氣血의 生成이 不足하면 痰濕이 內生한다. 腎虛는 精氣가 虧損한 것인데 이렇게 되면 經脈이 정상적인 運行을 하지 못하고 痰濕이 凝聚, 氣血이 鬱滯하여 局部에 腫塊가 점차적으로 發生한다. 或 情志가 不遂하면 肝氣가 鬱結, 鬱久則 化火하고, 陰血이 耗傷하여 血燥하고 肌膚가 榮華로움을 잃어버려 發病한다<sup>19)</sup>.

15) 王維德, 『外科證治全生』,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9, p.12.

“然其感毒無二. 以化毒爲貴”

16) 祁 坤, 『外科大成』, 台北: 文光圖書有限公司, 1979, p.322.

“由潰瘍血燥生風所致”

17) 上海中醫學院, 『中醫外科學』,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1, pp.325.

“總由肝虛怒氣血燥而成皮膚癌常見於外露皮膚, 似如長期而強烈的日光照晒有關, 其他刺戟如機械損傷, 灼傷, 慢性潰瘍, 柏油, 煤煙, 石油等化學物質也能透發皮膚癌”

18) 顧伯康 外, 『中醫外科臨床手冊』,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p.430.

“ 1) 基底細胞癌: 總由長期日晒, 以致火毒外侵, 與內有之痰濁凝結, 氣滯血瘀阻滯於皮膚而成

2) 皮膚鱗狀細胞癌: 初由濕痰與氣血凝結而成; 病久鬱而化火, 耗傷氣血, 陰虛內熱, 皮膚失養所致”

19) 楊思樹 外, 『中醫臨床大全』, 北京: 北京科學技術出版社, 1991, p.894.

“由於臟腑虛弱, 尤其脾胃功能日漸衰減. 脾虛氣血化源不足而痰濕內生, 腎虛而精氣虧損, 經脈失暢運行不調, 痰濕凝聚, 氣血鬱滯, 故局部腫塊漸生. 或因情志不遂, 肝氣鬱結, 鬱久化火, 耗傷陰血, 血燥肌膚失養而發病”

14) 吳 謙, 『醫宗金鑑』, 서울: 大星文化社, 1983, p.414.

“翻花瘡因潰後生, 血燥肝虛怒氣成. 總由肝虛, 怒氣血燥而成”

## 나. 症 狀

### 1. 《靈樞·刺節眞邪篇第七十五》

: 寒이 熱을 이기면 骨疼, 肉枯하고 熱이 寒을 이기면 爛肉腐肌해서 膿이 생긴다. 더 심해지면 체내의 骨까지 傷하게 되어 骨蝕해진다. 前筋에서 病이 생기면 筋이 屈伸을 못하게 되고 邪氣가 그 사이에 머물러 물러가지 않으면 筋溜가 된다. 체내외의 氣가 잘 순행해야 하는데 局部의 衛氣가 沮滯되어 순행하지 못하고 津液이 腸胃之間에서 久溜되면 腸溜가 되어 만지면 단단하다. 病이 심해져 邪氣가 骨에 이르러면 病이 날로 심해져 骨疽가 된다. 邪氣가 肌肉에 鬱滯되어 宗氣가 운행치 못하고 邪氣를 따라 鬱滯되어 있으면 內熱이 생겨 膿이 되고, 熱이 없으면 肉疽가 된다. 이러한 여러종류의 邪氣의 다양한 變化는 일정하게 정해진 發生部位는 없으나, 病名은 일정하다<sup>20)</sup>.

### 2. 《巢氏諸病源候論》

: 처음에는 飯粒과 같은 모양에 其頭가 潰破하면 出血 하고 다시 惡肉

20)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 東洋醫學研究院, 1985, pp.314~315.

“寒勝其熱, 卽骨疼肉枯, 熱勝其寒, 卽爛肉腐肌爲膿, 內傷骨, 內傷骨爲骨蝕, 有所疾前筋 筋屈不能伸, 邪氣居其間而不反, 發爲筋溜. 有所結, 氣歸之, 衛氣留之, 不得反, 津液久留, 合而按之堅, 有所結, 深中骨, 氣因於骨, 骨與氣并, 日以益大, 卽爲骨疽. 有所結中於肉, 宗氣歸之, 邪留而不去, 有熱卽化而爲膿, 無熱卽爲肉疽. 凡此數氣者, 其發無常處而有常名也”

이 생긴다. 점차 심해져 膿汁이 出하고 肉은 반대로 뒤집어져 花狀과 같은 모양을 이루니 이를 反花瘡이라 한다. 모든 惡瘡이 오랫동안 낫지 않아 惡肉이 반대로 뒤집어져 出하면 反花形의 모양이 나타난다<sup>21)</sup>.

### 3. 《醫學入門》

: 一肉이 菌과 같이 翻出한다. 크기와 높낮이는 일정하지 않고 蛇形의 모양에 數寸길이를 이룬다. 出血者는 肝이 不能藏血하고 脾가 不能約한所致<sup>22)</sup>.

### 4. 《薛己醫案》

: 瘡口의 腐肉(근더더기살)이 菌과 같이 突出하고 크기가 같지 않으며 或 蛇頭와 같이 나오는데 長短이 일정하지 않다<sup>23)</sup>.

### 5. 《東醫寶鑑》

: 一肉이 菌과 같이 翻出한다. 或은 蛇形에 數寸길이를 이룬다<sup>24)</sup>.

21) 巢元方, 『諸病源候論』, 台中 : 昭人出版社, 1988, pp.593~594.

“初生如飯粒, 其頭破則血出, 便生惡肉, 漸大有根, 膿汁出, 肉反散如花狀, 因名反花瘡, 凡諸惡瘡久不癒者, 亦惡肉反出如反花形”

22) 李 梴, 『醫學入門』, 서울 : 大星文化社, 1990, p.289.

“翻出一肉, 突如菌, 大小長短, 不一, 或如蛇形, 長數寸者, 出血乃 肝不能藏 脾不能約也”

23) 陳夢雷 外, 『醫部全錄 : 薛己醫按』, 서울 : 大星文化社, 1992, pp.372~373.

“瘡口腐肉突出如菌, 大小不同, 或出如蛇頭, 長短不一”

### 6. 《外科正宗》

: 翻花瘡은 頭大而蒂小하다. 小者는 豆와 같고 大者는 菌과 같다. 痛症은 없으며 鮮血이 흐르고 久則 身體를 虛하게 한다<sup>25)</sup>.

### 7. 《醫宗金鑑》

: 症狀은 頭大蒂小하고 鬚菌形하며 痛痒하고 腐蝕, 鮮血이 流하는것이 없더라도 頭大蒂小하며 愈努愈翻한데 비록 不大痛, 不大痒하더라도 잘못 治療해서 蝕損하게 되면 流血이 不住하고 久則 虧虛해진다<sup>26)</sup>.

### 8. 《外科大成》

: 翻花瘡은 瘡口內의 肉이 버섯과 같이 翻出하며 苦痛이 없다. 鮮血이 流하고 久則 身體를 虛하게 한다<sup>27)</sup>.

### 9. 《中醫臨床大全》

: 翻花瘡은 瘡面이 潰破後 花狀과 같이 翻出하여 名. 本病은 現代醫學的으로 鱗狀細胞癌에 해당한다.

(1) 診斷要點:

① 頭面, 頸部, 耳와 龜頭, 脣, 女陰等處에 好發한다.

② 老年人에서 많이 보임.

③ 皮膚損傷 初期에는 腫塊가 浸潤, 結癬 或은 疣狀의 患部가 생기고 만지면 堅硬, 表面에 菜花狀으로 潰破되고 때로는 潰瘍이 점차적으로 커져 邊緣이 隆起하며 底面이 凹凸하여 편

평하지 않고,膿性滲出物이 나오고 쉽게 出血된다.

④ 初期에는 全身症狀이 뚜렷하지 않고, 後期에는 形體가 瘦弱, 潮熱, 困倦, 精神疲勞等의 症狀이 생긴다.

(2) 辨證論治:

① 脾胃兩虛證: 皮膚가 菜花狀으로 損傷되고 色灰暗이며 潰瘍된 곳에 滲出物이 비교적 많고 쉽게 出血된다. 精神이 疲勞하고, 體倦, 腰膝酸軟, 面黃肌瘦, 飲食이 減少. 舌質淡, 或暗, 脈沈細弱하다.

② 肝鬱血燥證: 皮膚損害의 主要症狀은 結癬狀 或 乳狀의 瘡이 增生, 潰後에 瘡面이 편평하지 않고 滲出物은 적고 둘레에는 죽은 조직이 있거나 혹은 비린내가난다. 情志는 抑鬱되어 있고, 口乾咽燥, 夜臥不寧하다. 舌質은 紅少津하고, 苔는 薄黃하며 脈은 弦細, 弦滑하다<sup>28)</sup>.

25) 陳實功, 『外科正宗』,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p.224~225.

“翻花者乃頭大而蒂小, 小者如豆, 大者若菌, 無苦無疼, 皆損每流鮮血, 久亦虛人”

26) 吳謙, 『醫宗金鑑』, 서울: 大星文化社, 1983, pp.414~415.

“頭大蒂小鬚菌形, 雖無痛痒蝕流血, 其狀如菌, 頭大蒂小, 愈鬚愈翻, 雖不大痛, 大痒, 誤有蝕損, 流血不住, 久則虧虛”

27) 祁坤, 『外科大成』, 台北: 文光圖書有限公司, 1979, p.322.

“翻花瘡 瘡口內肉 突出翻如菌 翻如葷也, 且無痛苦, 損流鮮血, 久則虛人”

28) 楊思樹 外, 『中醫臨床大全』, 北京: 北京科學技術出版社, 1991, pp.894~895.

“翻花瘡因瘡面潰破, 翻散如花狀而得名. 本病相當於現代醫學的鱗狀細胞癌.

(1) 診斷要點:

① 好發於頭面, 頸部, 耳及龜頭, 脣,

24) 許浚,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83, p.573.

“ 翻出一肉, 突如菌, 或 如蛇形, 長數寸”

## 다. 治法·治方

### 1. <醫學入門>

: 外用으로 雄黃末을 붙인다. 內服으로는 補養脾胃藥을 사용하는데 十全大補湯 或 八物湯에 人蔘, 黃芪, 當歸, 白朮을 倍加한다. 出血者는 肝이 不能藏血하고 脾가 不能約한 所致이니 補中益氣湯에 五味子, 麥門冬을 加하거나 腎氣丸을 쓴다. 怒火로 인한 瘡은 八味逍遙散을 쓴다. 만약 治風藥을 써 汗多하면 반드시 瘡를 發하니 위대롭다. 外用으로는 藜蘆를 末로 海豬油에 高루 개어 患部에 바르며 每日 갈아준다. 모름지기 元氣가 점차로 회복되고 膿毒이 점차로 없어질 時期를 잘 기다려 外用藥을 바르면 瘡肉이 스스로 없어진다. 그렇지 않으면 비록 들어갔다해도 다시 나온다. 썩은 부위에 칼이나 針을 잘못 사용하거나

腐蝕藥 或 뜸을 잘못 誤用하면 그 病勢가 더 甚해져 出血如注, 寒熱嘔吐等의 副作用이 생기니 이때는 急히 補脾胃하는 것이 最善이다<sup>29)</sup>.

### 2. <薛己醫案>

: 治法은 滋肝補氣를 시키고 外用으로는 藜蘆膏를 바르면 努肉이 스스로 낫는다. 元氣가 회복되고 膿毒이 없어질 時期를 잘 살펴 外用藥을 바르면 瘡肉이 없어진다. 그러나 瘡肉이 없어졌다가 다시 潰할때 刀針蝕藥灸火를 誤用하면 그 病勢가 더 甚해져 出血不止, 寒熱嘔吐等의 副作用이 생기니 이때는 急히 補脾胃해야 낫는다<sup>30)</sup>.

### 3. <東醫寶鑑>

: 外用으로 雄黃末을 붙인다. 內服으로는 十全大補湯 或 八物湯에 人蔘,

女陰等處

② 老年人多見

③ 皮損初期爲浸潤腫塊, 結癬或疣狀損害, 觸之較硬, 表面破潰呈菜花狀, 有的呈增生潰瘍, 邊緣隆起, 底面凹凸不平, 由膿性滲出物, 易出血.

④ 初期全身症狀不明顯, 後期常見形體瘦弱, 潮熱, 困倦, 精神疲勞等 症狀.

(2) 辨證論治:

① 脾胃兩虛證: 皮損主要表現的菜花狀, 色灰暗, 潰瘍處滲出物較多; 易出血, 精神疲勞, 體倦, 腰膝酸軟, 面黃肌瘦, 飲食減少, 舌質淡, 或暗, 脈沈細弱.

② 肝鬱血燥證: 皮損主要呈結癬狀或乳狀增生, 潰後瘡面不平, 滲出少, 有環死組織, 或有腥臭味; 情志抑鬱, 口乾咽燥, 夜臥不寧, 舌質紅少津, 苔薄黃, 脈弦細, 弦滑”

29) 李 梴, 『醫學入門』, 서울: 大星文化社, 1990, p.289.

“外用雄黃末, 數之. 內服補養脾胃藥, 十全大補湯 或 八物湯 倍蔘芪歸朮. 出血乃 肝不能藏 脾不能約也, 補中益氣湯 加五味子 麥門冬 或 腎氣丸. 有怒火者, 八味逍遙散. 若用風藥, 速其凶也. 汗多, 必然發瘡, 危哉. 外塗藜蘆膏要勻, 藜蘆 一味爲末, 豬油, 調塗, 周日, 一易. 須候元氣漸復, 膿毒將盡時, 塗之則瘡肉自入. 不然, 雖入, 復出. 若誤用針刀蝕灸, 其勢益甚, 或出血如注, 寒熱嘔吐等證, 急補脾胃爲善”

30) 陳夢雷 外, 『醫部全錄: 薛己醫案』, 서울: 大星文化社, 1992, pp.372~373.

“治法當滋肝補氣, 外塗藜蘆膏, 努肉自入. 須候元氣漸復, 膿毒將盡, 塗之有效, 不然, 雖入而復潰. 若誤用刀針蝕藥灸火, 其熱益甚. 或出血不止, 必致寒熱嘔吐等證, 須大補脾胃爲善”

黃芪, 當歸, 白朮을 倍加한다. 外用으로는 藜蘆를 末로 해 猪油에 高루 개어 患部에 바르며 每日 갈아준다. 元氣가 회복되고 膿毒이 없어질 時期를 잘 살펴 外用藥을 바르면 腐肉이 없어진다. 그러나 腐肉이 없어졌다가 다시 생겼을때 針刀蝕灸를 誤用하면 그 病勢가 더 甚해지니 삼가해야 한다<sup>31)</sup>.

#### 4. <外科正宗>

: 水蠟散을 患部에 바르고 軟油紙參丸을 服하면 輕한 者는 半年만에 낫고 重者는 一년만에 점차 낫는다. 或 酒藥을 兼服시키며 房事, 厚味, 動風을 忌하며 調攝을 잘 하면 평생 再發하지 아니한다<sup>32)</sup>.

#### 5. <外科秘錄>

: 그 瘡勢가 重한 것은 반대로 毒이 輕한 것이다. 故人이 濕熱表虛라 했는데, 表虛한 原因이 濕熱로 인한 것만은 아니다. 表虛해지면 毒氣가 內로 積하게 되니 누가 毒氣가 內積해 있는데 그 表를 補해서 表實하게 되면 毒이 藏하기 어려워 쉽게 治療가 됨을 알겠는가. 그 毒을 攻伐하는데만 置重하면 虛한데 더 虛하게 만들어 害人하게 된다. 故로 반드시 飲食을 節制하고 忿怒를 戒하고 房事를 禁하며 每事에 너무 근심 걱정을 하지 말

31) 許 浚, 『東醫寶鑑』, 서울 : 南山堂, 1983, p.573.

“雄黃末, 敷之. 內服, 十全大補湯 或 八物湯 倍參芪歸朮. 外用藜蘆爲末, 猪脂, 調塗, 日一易候元氣漸復 腫毒將盡時, 塗之則腐肉自入. 否則雖入復出 若誤用鍼刀蝕灸 必危慎之”

고 마음을 淡淡히 가지며 外用으로 點藥을 敷하면 效과가 좋다<sup>33)</sup>.

#### 6. <醫宗金鑑>

: 治療는 逍遙散을 內服하거나 外用으로 烏梅煨灰, 輕粉을 各等分해서 아주 가루를 내어 뿌린다. 或은 馬齒見煨灰를 外敷하면 俱效하다<sup>34)</sup>.

#### 7. <外科大成>

: 治法은 滋肝補血, 益氣培元하며 逍遙散, 歸脾湯 等을 內服시킨다. 外用으로는 貴金散이나 烏梅煨灰를 敷하거나 或 馬齒見煨灰를 猪脂에 高루 개어 敷하고, 甚者는 銅綠 鉛粉을 等分하여 香油와 高루 患部에 바른다<sup>35)</sup>.

32) 陳夢雷 外, 『醫部全錄 : 外科正宗』, 서울 : 大星文化社, 1992, pp.378~379.

“以津調水蠟散遍擦正面, 上用軟油紙參丸, 輕者半年, 重者一載漸愈. 或兼服酒藥, 忌戒房事, 厚味, 動風等件, 可保終年不發矣”

33) 陳士鏞, 『外科秘錄』, 서울 : 醫聖堂, 1993, p.133.

“視其瘡勢若重, 其毒反輕, 蓋毒欲盡情出處也. 古人是濕熱表虛. 表虛則有之, 不可全歸於濕熱也. 總皆毒氣外發, 因表虛而反積. 誰知因積而補其表, 則表實而毒難藏, 轉易收功也. 惟是表虛, 不可再貪色慾, 不獨傳其毒而害人, 且虛其虛而自害. 故必須節飲食, 戒忿怒而斷房難, 斷無意處之虞, 外用點藥敷之, 自奏功如神矣”

34) 吳 謙, 『醫宗金鑑』, 서울 : 大星文化社, 1983, pp.414~415.

“宜服逍遙散, 外用烏梅煨灰, 輕粉各等分, 研末撒之; 或 馬齒見煨灰, 俱效”

35) 祁 坤, 『外科大成』, 台北 : 文光圖書有限公司, 1979, p.323.

“治宜滋肝補血, 益氣培元. 如逍遙散,



### 8. 《中醫外科學》

1. 內治는 養血滋肝하고 解毒化濕시킨다. 涼血四物湯 合 滋陰除濕湯을 用한다.
2. 外治로는 五五丹이나 或 千金散을 用하기도 하고 紅油膏를 外敷한다<sup>36)</sup>.

### 9. 《中醫臨床大全》

- 1) 脾胃兩虛證: 治法은 補脾益腎을 爲主로 하고 方은 歸脾湯, 補中益氣湯, 大補陰丸, 六味丸 或 八味腎氣丸을 쓴다.
- 2) 肝鬱血燥證: 治法은 疏肝養血潤燥하고 方은 逍遙散 加 梔子清肝散 加 減을 쓴다.  
外治法: 처음에는 患部에 藜蘆膏를 붙이고 每日 갈아준다, 瘡面의 滲出物이 많으면 桃花散을 붙여 濕을 거두고 乾燥하게 한다<sup>37)</sup>

## IV. 考 察

瘡瘍의 한 種類인 癩花瘡은 西洋醫學의 皮膚癌 中 基底세포암, 편평상피

歸脾湯之類. 外搽貴金散, 或 烏梅煨灰敷之, 或 馬齒見煨灰, 豬脂調敷, 甚者用銅綠鉛粉等分, 香油調敷.

一人患穿踝疽, 形翻突如剖破石榴, 但其色紅而不艷. 余以銀針於肉珠 上遍刺之, 流紫黑血, 共約碗許, 隨以玄珠膏塗之, 黑膏蓋之, 次日縮小 大半, 又如前刺, 三日三刺, 消完, 方露瘡口, 內服大補湯丸以培元氣, 外搽生肌藥方能收口. 治方: 逍遙散, 歸脾湯, 貴金散, 玄珠膏, 生肌散, 見葉膏”

세포암과 類似한 疾患<sup>38)</sup>으로, 歷代醫書 中 瘡의 原因을 살펴보면 《素問·至眞要大論》<sup>39)</sup>에 “諸瘡痛痒 皆屬心火” 라고 하여 諸瘡의 原因이 心火에 起因한다고 하였다.

《靈樞·刺節眞邪篇》<sup>40)</sup>에서는 癩, 瘤, 疣, 痣, 瘡, 瘍 등의 外科 諸證이 身體는 虛한데 外邪가 入하여 寒熱이 相搏해 發病한다고 했다. 또 “邪氣中之, …, 結氣歸之, …; 衛氣留之, …, 宗氣歸之…” 라 하여 病因病理上 正氣가 耗損되고 여러 氣가 定處없이 妄行하여 發한다고 한다.

巢 등<sup>41)</sup>은 “風毒相搏所爲”, “風毒

36) 上海中醫學院, 『中醫外科學』,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1, pp.325~326.

“內治 養血滋肝, 解毒化濕 涼血四物湯 合 滋陰除濕湯”

“外治 用 五五丹 或 千金散, 外敷 紅油膏”

37) 楊思樹 外, 『中醫臨床大全(下冊)』, 北京: 北京科學技術出版社, 1991. pp.894~895.

“1) 脾胃兩虛證: 治宜補脾益腎. 方用歸脾湯, 補中益氣湯, 大補陰丸, 六味丸 或 八味腎氣丸等.

2) 肝鬱血燥證: 治宜疏肝養血潤燥. 方用 逍遙散 或 梔子清肝散 加減  
外治法: 初期可用藜蘆膏外敷患處, 每日 換一次. 瘡面滲出物較多, 用桃花散外敷, 以收濕斂乾”

38) 上海中醫學院, 『中醫外科學』, 1981, pp. 325~327.

39)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p. 293~308.

40)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p. 314~323.

41) 巢元方, 『諸病源候論』, 台中: 昭人出版社, 1988, pp. 593~594.

凌耀星, 『中醫治癌秘訣』, 서울: 文匯

之邪가 肌膚를 客하여 內로는 陰血이 耗損, 奪精, 肝血이 枯燥하여 肌肉과 皮膚를 滋養하지 못해 失榮한다”라고 하여 風毒을 病因으로 보았고, 陳<sup>42)</sup>은 淫毒之氣에 惑해서 發한다고 하였다.

李 等<sup>43)</sup>과 《中醫外科學》<sup>44)</sup>에서는 病因을 “肝火血燥生風所致”라 하여, 元氣가 虛弱해져 있는데, 肝虛로 因해 血燥하여 怒氣가 盛해서 翻花瘡이 發한다고 하였다.

顧<sup>45)</sup>는 長時間의 日光에 露出되어 火毒이 外侵한데다가 內로는 痰濁凝結, 氣滯血瘀하여 皮膚로 外拔한所致라고 했다.

楊<sup>46)</sup>은 脾胃機能이 虛弱, 濕痰이 內生하여 凝滯된데다가 腎虛로 精氣가 虧損, 經脈의 運行이 不調하여 氣血이 鬱滯되어 局部의 腫塊가 생기거나 情志不遂로 肝氣가 鬱結하여 久則化火하고 陰血을 耗傷, 血이 燥해져 肌膚가 失養해서 發病한다고 하였다.

症狀에 있어서는, 《靈樞·刺節眞邪篇》<sup>47)</sup>에서 “熱勝其寒則 爛肉腐肌爲膿, 內傷骨, 內傷骨爲骨蝕”이라 하여 翻花瘡 뿐만 아니라 諸瘡證의 臨床症狀을 包括적으로 말하고 있다.

巢<sup>48)</sup>는 “처음에는 飯粒같은 것이 發生한 후, 그 頭가 破則 出血한다. 다시 甚하여지면 惡肉이 發生하고 膿汁이 나오며 肉이 花狀으로 뒤집혀져 나온다. 이로 인해 反花瘡이라 名한다.”라고 하였다.

李 等<sup>49)</sup>은 “瘡口의 內肉이 翻出하여 버섯과 같이 突出되어 있다.”고 하였다. 또 大小長短이 각기 다르다

하였다.

陳 等<sup>50)</sup>은 翻花瘡이 頭大而蒂小하고 無痛無痒, 無苦無疼하며 甚則 蝕損, 鮮血이 流하여 久則 虧虛해진다고 하였다.

楊<sup>51)</sup>은 ① 頭部, 頸部에서 好發하고 龜頭, 脣, 女陰 等處에서 發 ② 老年人에게서 多見 ③ 翻花瘡 初期에는 腫塊가 侵潤되나 나중에는 結癬 或 疣狀이 생기면서 만지면 단단해지고

42) 陳士擇, 『外科秘錄』, 서울 : 醫聖堂, 1993, pp. 132~133.

43) 李 梴, 『編註 醫學入門』, 서울 : 大星文化社, 1990, p. 289.

陳夢雷 外, 『圖書集成醫部全錄』, 서울 : 大星文化社, 1992, pp. 370~390.

吳 謙 外, 『醫宗金鑑』, 서울 : 大星文化社, 1983, pp. 414~415.

祁 坤, 『外科大成』,台北 : 文光圖書有限公司, 1979, p.322.

44) 上海中醫學院, 『中醫外科學』,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1, pp. 325 ~ 327.

45) 顧伯康 外, 『中醫外科臨床手冊』, 上海 : 上海科學技術出版社, p. 430.

46) 楊思樹 外, 『中醫臨床大全(下冊)』, 北京 : 科學技術出版社, 1991, pp 894~895.

47)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 東洋醫學研究院, 1985, pp. 314~315.

48) 巢元方, 『諸病源候論』, 台中 : 昭人出版社, 1988, pp. 593~594.

49) 李 梴, 『編註 醫學入門』, 서울 : 大星文化社, 1990, p. 289.

祁 坤, 『外科大成』,台北 : 文光圖書有限公司, 1979, p.322

50) 陳夢雷 外, 『圖書集成醫部全錄』, 서울 : 大星文化社, 1992, pp. 370~390.

吳 謙 外, 『醫宗金鑑』, 서울 : 大星文化社, 1983, pp. 414~415.

51) 楊思樹 外, 『中醫臨床大全(下冊)』, 北京 : 科學技術出版社, 1991, pp. 894~895.

경계가 불분명해진다. 表面이 菜花狀으로 潰破되면서 점차 주변부는 隆起되고 潰瘍底面은 凹凸이 不平해서 慢性 滲出物, 出血 등이 생긴다. ④ 初期에는 全身症狀이 없으나 後期에는 形體瘦弱, 潮熱, 困倦, 精神疲勞 등의 症狀이 생긴다고 하였다.

治療에 있어서는, 李<sup>52)</sup>는 內服藥과 外用藥으로 크게 나누었는데, 內服에서는 補養脾胃藥이 主가 된다고하여 十全大補湯, 八物湯에 人蔘, 黃芪, 當歸, 白朮 등을 倍加한다고 하였다.

또 癩花瘡에서 出血이 되면 이는 肝藏血과 脾統血의 相互機能이 不調化한 것이니 補中益氣湯에 麥門冬, 五味子를 加하여 眞陰을 滋養하고 收斂시킨다고 하였다. 또 怒火로 因한 것은 八味逍遙散을 用한다고 하였다.

外用으로는 黎蘆一味를 末로하여 豬油에 섞어 바른다고 하였다. 李의 說에서 특이한 점은 癩花瘡의 誤治時 治法에 대해서 言及했다는 점인데, 癩花瘡의 治療時 針刀蝕灸 治療를 誤用하여 그 病勢가 甚해지거나 出血이 끊임없이 나오고 寒熱嘔吐 등의 症狀을 併發하면 補脾胃藥을 급히 用하여 中氣를 잡아주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許<sup>53)</sup>는 單方으로 馬齒見을 燒灰하여 豬脂에 개어 바르라고 하였다.

張景岳<sup>54)</sup>은 綿花瘡, 反花瘡, 癩花瘡 등에 杏仁, 輕粉으로 이루어진 點藥, 雄黃, 杏仁, 輕粉으로 構成한 武定侯方, 黎蘆一味인 黎蘆膏, 그 外 臙脂散, 甘草塗搨方, 惡實根塗搨方 등을 用한

다고 하였다. 許<sup>55)</sup>는 補陰血하는 川芎, 天花粉과 礦物性 物質인 輕粉, 朱砂, 雄黃, 麝香 등을 末로 하여 外塗한다고 하였다.

陳<sup>56)</sup>은 瘡勢가 重한 것은 그 毒이 반대로 輕하여 毒氣가 다해 밖으로 排出되려 한 모양이라고 했다. 또 毒氣가 外로 發해야 되는데, 表虛하면 毒氣가 반대로 內積하니, 補其表하여 表實하면 毒이 藏하기 어려우니 쉽게 排出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예방 醫학적 섭생과 심리요법에 대해서도 말했는데, 色慾을 멀리 하고 飲食을 節制하고 怒하지 말며 思慮를 淡淡히 욕심내지 말고 藥을 服하면 낫는다고 하였다. 方으로 黃芪外托散, 地龍粉霜丹의 內外服藥을 併用하면 愈한다고 하였다.

吳<sup>57)</sup>는 逍遙散, 歸脾湯, 貴金散, 玄朱膏, 生肌散을 內服하거나 烏梅 段灰, 輕粉 등을 外服하라고 하였다.

吳<sup>58)</sup>는 治法을 滋肝補氣시킨다고

53) 許 浚, 『東醫寶鑑』, 서울 : 南山堂, 1983, p. 573.

吳 謙外, 『醫宗金鑑』, 서울 : 大星文化社, 1983, pp. 414~415.

祁 坤, 『外科大成』, 台北 : 文光圖書有限公司, 1979, p. 322.

54) 陳夢雷外, 『圖書集成醫部全錄』, 서울 : 大星文化社, 1992, pp. 414~415.

55) 許 浚, 『東醫寶鑑』, 서울 : 南山堂, 1983, p.573.

56) 陳士鏞, 『外科秘錄』, 台北 : 文光圖書有限公司, 1979, p.322.

57) 吳 謙外, 『醫宗金鑑』, 서울 : 大星文化社, 1983, pp.414~415.

祁 坤, 『外科大成』, 台北 : 文光圖書有限公司, 1979, p. 322.

58) 吳 謙外, 『醫宗金鑑』, 서울 : 大星文

52) 李 梴, 『編註 醫學入門』, 서울 : 大星文化社, 1990, p. 289.

하였다. 또한 軟油紙를 瘡之根蒂細處에 싸서 묶어두면 十日後에 患處가 自落한다. 이때 珍珠散을 患部에 바르라고 하였다.

王<sup>59)</sup>은 三黃丸, 瀉肝湯 등을 內服하거나 옛 醫書에 記載된 丸에 雄黃을 입혀 米飲과 같이 服用하라고 하였다.

中醫外科學<sup>60)</sup>에서는 內治로 養血滋肝, 解毒化濕하는 涼血四物湯 合 滋陰除濕湯을 用한다고 하였고, 外治로는 五五丹, 千金散, 紅油膏 등을 붙인다고 하였다. 그의 放射線 照射, 手術療法 등도 病變의 進行狀態에 따라 選擇한다고 하였다.

凌<sup>61)</sup>은 養血去風, 活血化癥, 利濕解毒하는 內服藥에 祛腐拔毒, 止血하는 外用藥을 互用하는 것이 翻花瘡 治療에 效率的이라 하였고, 치료한지 5년이 지나도록 再發치 않으면 完治라고 본다고 하였다.

楊<sup>62)</sup>은 內治와 外治를 併用하는데 外治는 初期에는 黎蘆膏를 患部에 붙이고 必要時에는 外科手術도 行한다고 하였다. 內治에 있어서는 脾腎兩虛證과 肝鬱血燥證으로 二分하였는데, 脾腎兩虛證에서는 補脾益腎시켜야 하니 歸脾湯, 補中益氣湯, 大補陰丸, 六味丸, 八味腎氣丸 등을 用한다고 하였고, 肝鬱血燥證에서는 疏肝養血潤燥시켜야 하니 逍遙散 或 梔子清肝散 加 減方을 用한다고 하였다.

翻花瘡을 西洋醫學의 觀點에서 보면, 皮膚암(Cancer of the Skin)중에서 기저세포암(Basal cell skin)과 편평상피 세포암(Squamous cell carcinoma)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고 하였지만<sup>63)</sup>, 顧<sup>64)</sup>

化社, 1983, pp.378~379.

는 皮膚암 중 편평상피 세포암이 變화창과 유사하다고 본다 하였다.

기저세포암(Basal cell carcinoma)은 表皮의 기저층 및 그 부속기에서 발생하는 惡性腫瘍이나, 일반적으로는 전이(Metastasis)가 거의 일어나지 않으며 全 皮膚암의 약 65%를 차지하고 臨床 症狀은 단발 또는 수개의 등근 丘疹을 형성하고 표면은 평활하며 모세혈관의 확장을 볼 수 있다. 丘疹은 차츰 커지면서 중심부는 함몰되고 潰瘍과 痂皮를 形成하며 수개월에서 수년간 지속되고 痂皮를 제거하면 쉽게 出血한다. 자각증상은 없으며 發生部位의 약 80% 이상이 顔面 특히 코에 好發하고 점막, 손바닥, 발바닥에는 發生하지 않는다<sup>65)</sup>. 시일이 지날수록 潰瘍의 주변부는 堤防모양으로 약간 隆起되고 潰瘍은 잠식되어 주변부의 피부가 안으로 말려든 것과 같은 특이한 모양을 하고 있다. 發生 연령층은 95% 이상이 40代 以上에서 발생하며, 1000여명의 환자에 대한 치료결과 약 1/3인 33%가 再發했다고 한다<sup>66)</sup>. 他 部

59) 王維德, 『外科證治全生』,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9, pp.12~13.

60) 上海中醫學院, 『中醫外科學』,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1, pp.325~327.

61) 凌耀星, 『中醫治癌秘訣』, 서울: 文匯出版社, 1995, p.256.

62) 楊思樹 外, 『中醫臨床大全(下冊)』, 北京: 科學技術出版社, 1991, pp.894~895.

63) 上海中醫學院, 『中醫外科學』,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1, pp.325~327.

64) 顧伯康 外, 『實用中醫外科學』,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5, pp.552~553.

65) 대한피부과학회, 『피부과학』, 서울: 麗文閣, 1990, pp.272~279.

66) Vincent.T.Devita,Jr 外, 『Cancer

이나 臟器로의 전이(Metastasis)는 아주 드물며, 發病原因은 日光에의 過多한 露出, 放射線, 열상, 火傷, 만성궤양, 化學물질, 만성적인 기계자극, 직업적인 원인, 癌등인데 이 중 日光이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생각되며, 人種別로는 백인이 유색인종보다 발생빈도가 더 높는데 이는 피부 속의 멜라닌 色素와 關聯이 있다고 생각되며 또한 治療는 단순절제(Simple excision), 이온화 방사선 치료, 전기 외과술(Electrosurgery), 화학 외과술(Chemotherapy), 냉동외과술(Cryosurgery), 레이저 요법 등이 있는데, 患者의 年齡, 性別, 病變의 크기, 部位, 形態에 따라 適切한 治療法을 選擇한다<sup>67)</sup>.

편평상피 세포암(Squamous cell carcinoma)은 표피 각질세포의 惡性腫瘍으로 세포의 각화경향이 많고, 주로 일광에 노출되는 피부 또는 점막에 好發한다. 臨床症狀는 피부뿐만 아니라 점막에서도 발생하며 일광에 의한 손상, 각화증, 潰瘍 같은 것이 先行된 부위에서 흔히 발생한다. 경계가 뚜렷하고 둥근 사마귀 같은 홍갈색 또는 피부색의 단단한 結癬을 形成하게 되는데, 기저세포암과는 달리 結癬은 수개월이내에 빨리 퍼진다. 나중에는 하부조직까지 침윤하며 중심부에 潰瘍을 형성한다. 潰瘍은 痂皮로 덮혀있어 이를 제거하면 분화구와 같이 주변부가 隆起되고 底面은 꽃 양배추 모양으로 增殖되며 농즙 또는 점액으로 덮혀있고 癌의 특유한 악취가 난다<sup>68)</sup>.

편평상피 세포암의 好發部位는 노출부위인 안면, 하구순, 손등, 피부점막 이행부, 유두, 성기, 사지, 두피, 귀, 목, 겨드랑, 손가락, 발가락 등에 발생할 수 있다. 發病原因은 대체로 기저세포암의 경우와 같으며, 오랜동안의 일광노출이 주요한 원인이 된다. 치료는 타부위나 조직으로 전이할 가능성이 있으니 철저히 치료해야 하며, 치료방법의 선택은 기저세포암의 경우와 같다.

靛花瘡과 기저세포암, 편평상피 세포암의 症狀, 原因을 서로 比較해 아래 표로 要約했다.

아래 표의 症狀를 比較해보면,

西洋醫學에서 描寫한 “潰瘍의 주변부는 堤防모양으로 隆起되고, 潰瘍은 잠식되어 주변부 피부가 안으로 말려든 것과 같은 특이한 모양”, “분화구와 같이 주변부가 융기되고 底面은 꽃 양배추 모양으로 增殖” 등의 표현은 韓醫學에서 말한 “靛花”라는 用語로 잘 나타냈다고 생각된다.

또, “潰後生, 頭大蒂小, 怒菌形, 無痛痒, 蝕流血”의 說明도 西洋醫學에서 묘사한 기저세포암과 편평상피 세포암의 症狀說明과 잘 부합된다.

靛花瘡의 原因에 있어서, 韓醫學에서는 ① 風毒之邪나 淫毒之氣 等 外因에 侵襲당한 경우 ② 瘡瘍이 潰한後에 肝火로 因해 血燥하여 生風해서 發한 경우 ③ 元氣가 虛弱해진데다가 肝이 虛해져 血燥해지게 되고 이에

principles and practice of Oncology, Philadelphia ; Lippincott Company, 1989, pp.1471~1480.

67) 대한피부과학회, 『피부과학』, 서울 : 麗文閣, 1990, pp.272~279.

68) 위의 冊, pp. 272~279.

<표 1>

	翻花瘡	기저세포암 (Basal cell carcinoma)	편평상피 세포암 (Squamous cell carcinoma)
症 狀	<p>1. 潰後生, 頭大蒂小, 怒菌形, 無痛痒, 蝕流血</p> <p>2. 翻出一肉, 突如菌, 大小長短不一, 或如蛇形, 長數寸, 甚則 出血如注</p> <p>3. 綿花, 廣豆, 廣瘡</p> <p>4. 頭昏無力, 精神萎軟 納穀不香, 夜寐不安 病所의 表面高低가 고르지 못함. 質地堅, 四周堅硬, 中央破潰, 滲流漿液汚血水, 舌質紅淡, 苔薄黃膩, 脈細數</p>	<p>단발 또는 수개의 둥근구진을 형성하고 표면은 평활, 모세혈관은 확장됨. 구진은 차츰 커지면서 중심부는 함몰, 궤양과 가피를 형성, 수개월~수년간 지속된다. 시일이 지날수록 궤양의 주변부는 제방모양으로 약간 융기되고 궤양은 잠식 되어 주변부 피부가 안으로 말려든 것과 같은 특이한 모양을 하고 있다.</p>	<p>피부뿐만 아니라 점막에서도 발생. 처음에는 경계가 뚜렷, 둥근 사마귀 같은 홍갈색 혹은 피부색의 단단한 결절을, 표면에 모세혈관 확장을 볼 수 있음. 기저세포암과 달리 결절은 수개월내에 빨리 퍼진다. 궤양은 가피로 덮혀있어 이를 제거하면 분화구와 같이 주변부가 융기되고 저면은 꽃 양배추 모양으로 증식, 농즙 또는 점액으로 덮혀있고 암의 특유한 악취가 난다.</p>
原 因	<p>1. 感毒</p> <p>2. 肝虛怒氣血燥而成</p> <p>3. 感淫毒之氣</p> <p>4. 元氣虛弱, 肝火血燥生風</p> <p>5. 血燥肝虛怒氣成</p>	<p>일광, 방사선, 열상, 화상, 만성궤양, 화학물질, 만성기계자극</p>	<p>기저세포암과 동일</p>

怒氣가 盛해서 發하는 경우 ④ 怒火로 인한 경우 등으로 區分할 수 있다.

西洋醫學에서는 皮膚癌의 原因으로 ① 日光에의 過多한 露出 ② 放射線

③ 熱傷, 火傷 ④ 慢性潰瘍 ⑤ 化學物質 ⑥ 慢性的인 機械刺戟 ⑦ 職業的인 原因 ⑧ 癌 등을 들 수 있는데 이중 日光을 가장 중요한 原因으로 보

고 있다.

西洋醫學은 皮膚癌의 原因을 모두 外因을 들고 있는데 반해, 韓醫學에서는 外因 이외에도 元氣가 虛弱해진 상태에서 發한다고 하여 豫防醫學의 攝生과 體質的 素因을 重視하고, 肝虛로 因해 怒火가 盛해서 發한다는 것은 現代醫學的 스트레스의 概念과 類似하고, 總括的인 原因을 더 광범위하게 說明하고 있다.

韓醫學에서는 瘡이 일단 潰한 後에 生하여 頭大蒂小하고 如菌形 或 如蛇形하며 大小長短이 같지 않다고 하고, 無痛無痒, 無苦無疼하며 甚則流膿血하다고 본다. 이런 描寫는 西洋醫學의 피부암중 기저세포암과 편평상피 세포암의 臨床症狀 說明과 유사하다.

다만 黧花瘡은 기저세포암, 편평상피 세포암과 모두 類似하다고 하는 說<sup>69)</sup>도 있고, 편평상피 세포암이 黧花瘡과 類似하다는 說<sup>70)</sup>도 있다. 이 차이점은 서양의학에서는 兩者를 區分하나, 韓醫學의 黧花瘡과 이를 관련지어 區分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韓醫學에서 말하는 證은 西洋醫學의 病名에 비해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意味를 含蓄하고 있기 때문이다.

西洋醫學에서는 편평상피 세포암은 轉移가 잘 되고, 發病進行이 급격히 이루어지며, 發生部位도 기저세포암처럼 顔面에 局限되는 것이 아니라 下口脣, 손등, 皮膚粘膜 移行部, 乳頭, 性器, 四肢, 頭皮, 귀, 목, 겨드랑, 손가락, 발가락 等 粘膜에까지 擴大한다는

점들이 기저세포암과 다르다고 區別하고 있다.

黧花瘡의 治療에 있어서, 西洋醫學에서는 단순절제(Simple excision), 이온화 방사선 치료, 전기 外科術(Electro-surgery), 화학 外科術(Chemo-surgery), 냉동외과술(Cryo-surgery), 레이저 요법 등이 있는데, 患者의 年齡, 性別, 病變의 크기, 部位, 形態에 따라 適切한 治療法을 選擇한다.

韓醫學에서는 黧花瘡을 단순히 追蝕, 消毒爲主의 攻伐만 하는 것이 아니라 扶正去邪의 觀點에 依據하여 虛해진 肌膚와 脾胃土의 中氣를 滋養하여 肌肉과 皮膚를 潤하게 하고, 肝火로 因한 怒氣를 살피며 아울러 外治도 兼하는 治法을 運用하고 있다.

즉 內服으로는 ① 補中益氣湯, 十全大補湯, 八物湯 等の 補土藥<sup>71)</sup>과 ② 清肝熱 滋肝養血하는 梔子清肝湯<sup>72)</sup>, 涼血四物湯<sup>73)</sup> 等の 藥物을 運用하기도 하고 ③ 怒火로 因한 黧花瘡에는 逍遙散<sup>74)</sup>, 歸脾湯<sup>75)</sup> 等を 使用한다고 하였다.

또 外用으로는 外拔된 瘡을 軟堅, 消腫, 解毒하고 止血去腐肉시키기 위

70) 顧伯康 外, 『實用中醫外科學』, 上海 :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5, pp. 552~553.

71) 李 槿, 『編註 醫學入門』, 서울 : 大星文化社, 1990, p.289.

72) 陳夢雷 外, 『圖書集成醫部全錄』, 서울 : 大星文化社, 1992, pp.378~379.

73) 上海中醫學院, 『中醫外科學』, 上海 :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1, pp.325~327.

74) 李 槿, 『編註 醫學入門』, 서울 : 大星文化社, 1990, p.289.

75) 祁 坤, 『外科大成』, 台北 : 文光圖書有限公司, 1979, p.322.

69) 上海中醫學院, 『中醫外科學』, 1981, pp.325~327.

해 ① 藜蘆나 馬齒現, 烏梅 段灰를 敷하거나 ② 輕粉, 雄黃 等の 金石之材를 外塗한다고 하였다<sup>76)</sup>.

이러한 藥物治療 이외에도 翻花瘡의 治療에서 養生法 및 心理治療도 言及했는데, 巢<sup>77)</sup>는 反花瘡(翻花瘡)을 包含한 諸惡瘡의 治療에 있어서 “龍行氣, 叩頭下視, 不息十二通, 愈風疥惡瘡” 이라하여 導引養生法을 말했고, 陳<sup>78)</sup>은 色慾을 貪하지 말고 飲食을 節制하며 분노하지 말고 思慮를 淡淡히 가져 每事에 慾心내지 말라고 했는데 이는 現代醫學의 心理治療法에 해당된다고 본다.

이상 翻花瘡의 施治에 關한 考察에서 본 바와 같이 西洋醫學的 治療法 보다는 韓醫學的 治療法이 더 多樣하고, 疾病爲主가 아닌 有機體적인 觀點이며, 既存의 藥物과 外治法 이외에도 導引養生, 心理治療, 豫防醫學的 攝生法까지 行함으로써 心身論的으로 균형을 갖추고 調和를 이루었다고 생각된다.

## V. 結 論

1. 翻花瘡과 基底세포암, 편평상피 세포암의 原因과 症狀를 比較한 결과, 同類의 證을 말한 것으로, 西洋醫學에서 말하는 皮膚癌의 一種 疾患이다.

2. 翻花瘡의 韓醫學的 原因은 첫째로, 風毒之邪, 淫毒之氣 等 外因에 侵

襲당한 경우 둘째로, 瘡瘍이 潰한 後에 肝火로 因해 血燥하여 生風해서 發한 경우 셋째로, 元氣가 虛弱한데다가 肝虛해져 血이 燥하게 되고 이에 怒氣가 盛해서 發하는 경우 넷째로, 怒火로 因한 경우 等으로 보았다. 西洋醫學的 原因은, 日光에의 過多한 露出, 放射線, 熱傷, 火傷, 慢性潰瘍, 化學物質, 慢性機械刺戟, 職業的인 原因, 癌 等이 있다.

3. 翻花瘡의 症狀은 潰한 後에 生하는데 頭大蒂小하고, 菌形하며 無痛痒, 腐蝕流血한다. 或은 一肉이 翻出하여 突如菌하고 大小長短이 같지 않으며 或 蛇形의 瘡이 數寸에 이르기도 하고 甚則 出血如注한다. 西洋醫學의 皮膚癌의 臨床症狀도 翻花瘡의 症狀과 類似하다. 그러나 皮膚癌 中에서 편평상피 세포암은 基底세포암에 비해 轉移가 잘 되고, 發病進行이 급격히 이루어지며, 發生部位도 基底세포암처럼 顔面에 局限되는 것이 아니라 粘膜까지 확산된다.

4. 翻花瘡의 治療에서 韓醫學的 觀點으로는 內服으로 補脾胃土, 養血去風滋肝, 疏肝清熱, 活血化瘀, 利濕解毒시키는 治法을 爲主로 하고, 外用으로는 軟堅消腫解毒, 止血 去腐肉시킨다. 또 導引養生, 心理治療, 豫防醫學的 攝生法까지 광범위하게 包括的으로 治療法을 제시하고 있다. 西洋醫學的

77) 巢元方, 『諸病源候論』, 台中: 昭人出版社, 1988, pp.593~594.

78) 陳士鏞, 『外科秘錄』, 台北: 文光圖書有限公司, 1979, p.322.

76) 위의 冊, p.322.



治療는 단순절제, 이온화 방사선 치료, 전기 외과술, 화학외과술, 냉동외과술, 레이저 요법 등이 있다.

### 參考文獻

1. 顧伯康 外 : 中醫外科臨床手冊,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2. 顧伯康 外 : 實用中醫外科學,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5.
3. 祁 坤 : 外科大成, 臺北, 文光圖書有限公司, 1979.
4. 김동일 外 : 동의학사전, 서울, 여강출판사, 1989.
5. 凌耀星 : 中醫治癌秘訣, 上海, 文匯出版社, 1996.
6. 대한병리학회 : 병리학, 서울, 고문社, 1995.
7. 上海中醫學院 : 中醫外科學,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1.
8. 巢元方 : 巢氏諸病源候論, 臺中, 昭人出版社, 1988.
9. 楊思樹 外 : 中醫臨床大全(下冊), 北京, 北京科學技術出版社, 1991.
10. 吳 謙 外 : 醫宗金鑑, 서울, 大星文化社, 1983.
11. 王維德 : 外科證治全生,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9.
12. 李 挺 : 編註 醫學入門, 서울, 大星文化社, 1990.
13. 周國平 外 : 癌 證治全生, 서울, 醫聖堂, 1994.
14. 陳士鐸 : 外科秘錄, 서울, 醫聖堂, 1993.
15. 陳夢雷·蔣延錫 等 : 圖書集成醫部全錄, 서울, 大星文化社, 1992.
16. 대한피부과학회 : 피부과학, 서울, 麗文閣, 1990.
17. 洪元植 :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18. 洪元植 :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19. 許世厚 外 : 抗癌中藥方選, 北京, 人民軍醫出版社, 1992.
20. 許 浚 :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83.
21. Vincent T. Devita Jr, Samuel Hellman, Steven A. Rosenberg : Cancer principles and practice of Oncology, Philadelphia, Lippincott company, 1989.